

성인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및 노동이동 의사의 상호관련성

Woma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Mobility Willingness in the Labor Market

충남대학교 소비자·가정관리학과

교수 김순미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혜연

Dept. of Consumer Sciences & Family Resource Managemen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 : Soon-Mi Kim

Dept. of Home Management Cheju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 Hye-Yeon Kim

● 목 차 ●

I. 문제제기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stablish a conceptual model on the woma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mobility in the labor market an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Included in those models were two independent variable sets. The one was related to household's financial conditions and the other was associated to the woman's role such as marital status, the number of children and the existence of young children. KHPS's national data was used and the Binomial Probit Model and Bivariate Probit Model were employed to analyse th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correlations between two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rate of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percentage of mobility willingness were 15.4% and 22.0%. Among the variables which have affect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were total wage income, non-wage income, expenditure on children's education and the subject judgement of their financial status. The existence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6 and marital status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women's mobility willingness. The correlation between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mobility willingness was very significant statistically. These findings clarified the status of woman as a secondary worker and pointed that a woman's economic activity would be subject to the woman's condition rather than her human capital.

I. 문제의 제기

성인 여성¹⁾은 생산가능 인구이면서도 성인 남성에게 비해 경제활동 참가가 낮은 이차적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이나 시간제 직업과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가 초래되고, 여성노동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자신의 취업욕구와 경제활동을 위한 능력 등이 갖춰짐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는 미시적으로 개인이나 가계의 생활수준과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전체 노동력의 양 및 질, 나아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좌우하게 되므로, 최근 들어 여성노동력의 잠재성과 그 활용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은 몇 가지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의 수가 여전히 많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4년 39.5%에 비해 1994년 47.9%로 약 10% 정도 증가했지만, 이 수치는 생산가능 연령의 여성 2명 중 1명은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통계청, 1995).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은 미혼이나 결혼 초기에 참가율이 높다가 중년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전형적인 M자형을 보이고 있다(김태홍, 1993). 뿐만 아니라 취업여성의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 수평적, 수직적 격리의 직업분포 경향이 있으며, 불완전, 부분 고용의 일용직, 시간제 취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김혜연, 1995).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참가 여부와 더불어 참가 후 노동시장에서의 퇴출이나 직업이동과 같은 노동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동적, 탄력적 특징이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의 경제활동 참가나 노동이동의 결정에는 개인의 인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즉 개인의

교육, 기술 등의 인적 자본에 따른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 등에 의해 경제활동이 좌우되기 쉬운 것이다(Becker, 1975).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에서는 이와는 달리 결혼, 출산, 자녀양육과 같은 여성적 책임이 주요한 영향변수로 나타난다(Mincer, 1969; Heckman, 1974). 특히 자녀의 출산과 가정내 어린 자녀의 존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저해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저소득 가정에서는 여성적 역할과 무관하게 여성의 경제활동에 의한 경제적 기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Vickery, 1979). 실제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여성적 책임과 관련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상에 변화가 나타나지만, 육체근로자가 대부분인 저소득 가정의 여성은 일생에 걸쳐 경제활동 참가가 나타난다.

한편 현대에 이르러 여성의 직업적 성취동기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어렵지 않으면 여성의 경제활동은 이차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가계소득이 충분할수록,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은 불필요하거나 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동기에 의해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다 높은 생활수준에 대한 욕망은 여성적 책임이 높게 요구되는 생활주기단계에서조차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속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Hoffman, 1974; Moen, 1985). 반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에게 부과되는 여성적 책임은 직업에 대한 소명감을 낮추며, 역할갈등을 야기하므로 직업적 변화나 노동시장에서의 퇴출과 같은 노동이동을 고려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안드레 지, 한국여성개발원, 역, 1987; Bielby, 1992).

이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및 노동이동은 여성에게 부과되는 여성적 책임과 경제적 상태라는 두 가지 영향변수에 의해 동시에 일어나거나 혹은 관찰가능한 상호관련적 결정일 수 있다. 다시 말해

1) 여성이라 칭함

2)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4년 69.4%에서 1994년 76.4%로 증가하였다.

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자신의 능력보다는 여성적 책임과 경제적 상태에 의해 경제활동 참가 자체가 좌우되며 경제활동에 참가한 후에도 노동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유동적, 탄력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들(김태홍, 1993; 신영수, 1991; 양승주, 1993; Finegan, 1975; Hanoch, 1980; Killingsworth & Heckman, 1986)을 살펴보면 여성노동력의 양적, 질적 특징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나 노동력의 수요, 공급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나 노동이동이 각각 개별적인 현상으로 파악됨으로써 그 상호관련성이 인식되지 못했다. 더욱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여성적 책임과 경제적 상태 이외에 다른 관련 변수들이 고려됨으로써 두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중점적으로 분석되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영향력이 큰 여성적 책임과 경제적 상태가 경제활동 참가와 노동이동 의사의 상호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성인 여성의 경제활동과 선행연구의 고찰

1.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남성의 경제활동과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여성의 실업률 역시 남성에 비해 낮은데, 그 이유는 실업자를 '취업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수입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못한 자'로 규정(경제활동인구연보, 1996) 함으로써, 가사일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기혼 여성을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직업별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여성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

<표 1>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취업구조	남성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¹⁾	76.5	48.3
실업율(%) ¹⁾	2.3	1.7
비경제활동율(%) ¹⁾	23.5	51.7
직업별 비율(%) ²⁾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9.9	11.2
사무직	10.1	15.5
서비스·판매직	15.1	32.0
농림어업직	10.8	14.6
기능·단순직	44.1	26.7
주당 평균 취업시간(시간)	54.1	49.9
주당 35시간이하 취업자비율(%)	4.2	9.5
평균 근속년수(년)	5.9	3.4
사업체 규모별 비율(%) ³⁾		
9인 이하	7.0	8.0
10-99인	46.1	49.0
100-299인	7.0	17.7
300인 이상	27.9	25.3

출처 : 경제활동인구연보(1996), 통계청.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1996, 1997), 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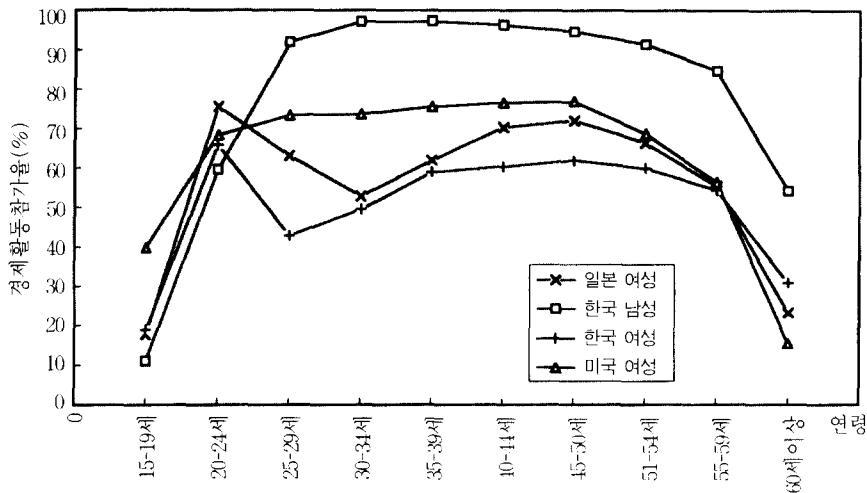
¹⁾1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함

²⁾1992년 4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을 기초로 함

³⁾1996년 자료임

업은 서비스·판매직이었으며, 전문·기술·행정·관리직 등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낮았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여성이 남성보다 적었다.

노동이동 가능성과 관계가 있는 불완전, 부분고용인 시간제취업(35시간 이하)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정도 높았는데, 실제로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년수는 여성이 더 적었다. 사업체 규모에 있어서 10인 미만이나 10-100인 미만의 영세 및 소기업체, 그리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남녀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100-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에 종사하고 비율은 여성이 다소 높았다. 몇 년 전만 해도 여성의 취업이 영세업체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체 규모별로 본다면 여성의 취업조건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여성채용이 여전히 많지 않으며, 앞으로도 여성의 시간제 취업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불안정한 여성의 고용조건은 여성의 노동이동 가능



출처 : ILO(1992), Labor Statistics.

〈그림 1〉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성을 높게 하는 요인이 된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은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보다 분명한 특성을 볼 수 있다(〈그림 1〉).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 그리고 일본 및 미국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비교해보면, 미국 여성의 경우를 제외하고 1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주로 미국 10대에게 있어서 교육제도와 시간제 취업기회의 차이에서 기인한다(어수봉, 1991). 또한 미국 여성은 우리나라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보다는 낮지만, 역U자 형과 유사한 참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여성은 우리나라 여성의 참가율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참가율이 다소 높아 미국 여성의 참가율 형태를 향한 과도기 형태로 분석된다.

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형적인 M자 형으로 결론. 출산 등 여성적 책임이 요구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서 퇴출한 후 30대 후반에 들어서 다시 진입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때 노동시장에 대한 재진입의 이유는 여성적 책임의 요구저하와 그에 따른 시간적 여유, 취업을 통한 적성과 능력개발 등을 들 수 있지만,

생계유지나 가계경제 수준의 향상과 같은 경제적 필요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통계청, 1993).

2. 선행연구의 고찰

한 개인의 경제활동 참가 여부에 대한 초기의 경제학적 접근은 개인의 노동과 여가 간의 선택에 초점을 두었다. 즉 개인의 경제활동은 1시간 더 노동함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한계비용보다 클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력 공급은 여가와 노동 이외에 가사노동시간이 갖는 가치도 고려되어야 한다. Mincer나 Becker 이후 발전한 가계생산이론에 의하면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은 노동공급을 함으로써 얻는 기대수익으로서의 시장임금(market wage)과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는 요구임금(reservation wage)을 합리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시장임금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시간에 대한 시장가치, 즉 그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의미하며, 요구임금은 그 여성이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위해 쓴 가사노동 시간의 효용을

말한다. 따라서 시장임금이 요구임금보다 높을 때 여성은 가사노동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기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다(Heckman, 1974).

여성의 시장임금은 경제학적 '생산성'과 관련된 개인변수들, 예를 들어 교육, 지능, 기술 등 인적 자본에 따라 주로 결정되는 반면, 요구임금은 가사노동과 자녀들을 돌보는 데 써야 하는 시간의 양과 그 가치에 의해 결정되므로 주로 결혼 및 출산 여부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한 여성과 출산을 앞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요구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그 만큼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고, 노동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의 진입 및 퇴출 횟수가 잦은 노동이동을 하는 경향이 높다(Desai & Waite, 1991).

이와는 대조적으로 Felmler(1982)는 여성의 결혼 상태, 자녀의 수는 노동이동에 있어서 제약요인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기혼 여성의 경우 결혼으로 인해 남편에 맞춘 직업 선택을 하게 되며, 직업적 변화와 관련된 지역적 이동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주는 기혼 여성이 직업에 대한 소명감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여 고용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녀의 수가 여성의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두 방향이어서, 한편으로 자녀를 돌보는 시간으로 인해 여성은 적절한 노동을 갖지 못하게 되며, 또 다른 한편으로 자녀양육은 여성이 융통적인 노동조건을 찾아 더 빈번하게 노동이동을 해야 하는 압박요인으로 존재하게 된다.

한편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가구 단위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배우자의 수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남편의 소득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부적 관계가 실증적으로 증명된 것은 Douglas(1919)에 의해서였다. 그 후 Long(1958)이 1800년 이래 미국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남녀 모두 경제활동 참가율과 성인 남성의 평균 임금 사이의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Douglas(1919)의 연구결과를 재확인하였다(김수근, 1976).

남편의 수입은 부인의 노동시장 참여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서 남편의 수입이 높을수록 여

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아지게 된다(Nakamura and Nakamura, 1991).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 혹은 타가족원의 소득 역시 여가가 정상적인 한 소득효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소득이 줄어든다면 개인의 여가 가치를 감소시키게 된다(Ehrenberg & Smith, 1994; Lloyd, 1982). 따라서 남편의 근로소득 이외의 가계소득에 여유가 있을수록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남편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가계 재정이 곤란한 경우 여성의 부차적 소득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므로 어린 자녀가 있어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미국의 저소득 가정의 젊은 여성, 혹은 편모 가정의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러한 경제적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Eggebeen & Hawkins, 1990; Granovetter, 1988).

이와 같은 서구의 연구결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이루어져 그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연구내용 또한 기초 분석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나 노동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양승주(1993)는 1992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 취업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영향요인으로 농가(farm household)여부, 연령, 타가구원소득, 교육년수, 자녀 변수, 경력, 임금, 종사상 지위, 직업을 선정했다. 분석결과 타가구원 소득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 기혼 여성의 가계 경제 상태가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변수는 자녀변수였다. 예를 들면 자녀수, 막내자녀연령, 18세 미만 자녀 수 등을 자녀변수로 선택해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6세 미만 자녀의 존재였다. 즉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17.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 자녀의 존재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

신영수(1991)는 여성노동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위해 1986년 2차 고용구조특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를 취업, 무급가족종사자, 비경제활동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기혼 여성은 미혼 여성에 비해 임금근로자로서의 참여도가 낮았으며, 무급 가족종사자로서의 경제활동 참가가 많았다. 김승아(1989)는 남편과 사별은 여성에게 생활유지의 부담을 주므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하는 유인 요인이 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 여성의 결혼상태는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신영수(1991)의 연구에서 남편의 소득이 비교적 높은 기혼 여성은 임금근로자로서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보다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남편 혹은 기타 가구원이 경영하는 농장이나 소규모 기업체에서 부차적 일을 돕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남편의 소득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의 관계에 대한 서구의 연구결과들(Ehrenberg & Smith, 1994; Killingsworth & Heckman, 1986)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노미혜, 김영옥(1993)은 1992년 한국여성개발원 자료를 기초로 도시에 거주하는 21세 이상 50세 이하 여성 1,887명을 표본으로 여성의 취업경력을 분석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중졸, 고졸, 대졸의 순으로 감소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교육수준 간에 정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는 대조를 보인다(Waite, 1980). 이와 같이 고학력 여성일수록 취업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이들은 학력에 부응하는 취업 기회가 제한된 노동수요측 요인과 자녀의 양육·교육 등 가사노동에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노동공급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했다. 또한 이 연구는 학교 졸업이후 첫 직종, 미혼시기의 마지막 직종, 출산 후 첫 직종, 가장 최근의 직종을 비교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이동을 파악했는데, 출산 전 직종과 출산 후 첫직종이 일치했던 여성의 비율은 22.4%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미혼 시절 사무직 종사자의 대부분은 판매, 서비스, 생산직으로 이동하고 미혼시 상용고였던 여성은 노동시장 재진입

시 자영, 가족종사자, 일용고로 복귀하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은 출산으로 인해 취업 중단이나 직종이동이 많으며 노동시장 재진입 후 미혼시 직종으로 복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여성적 책임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성 537명을 대상으로 여성 노동력의 특성과 노동이동 성향을 조사한 이근희, 조명기(1991)의 연구에서는 현재의 직장에서 이직할 의사가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이직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여성은 30.9%인 166명이었으며, 이직의사를 밝힌 여성은 279명, 51.9%였는 바, 이직 의사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혼 등의 개인사정이었고, 그 다음이 저임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서구에서의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나 노동이동 의사는 경제적 상태와 여성적 책임의 두 변수에 의해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III.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1. 연구모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성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상태에 의해 결정되며, 여성적 책임에 따라 노동이동 의사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두 종속변수 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성인여성의 경제활동 참가=f(경제적 상태 변수)

성인여성의 노동이동 의사=g(여성적 책임 변수)

이 때 경제적 상태 변수에는 가계의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유무, 앵겔계수, 교육비지출, 여가비,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을 포함시켰다. 이것은 특정 재정관련변수와 더불어 특정 항목에 대한 지출구조나 비율에 의해 가계의 일반적인 경제수준을 파악할 뿐 아니라 주관적인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도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

<표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경제활동 참가	현재 취업여부 1=취업, 0=비취업
노동이동 의사	현재 직업을 그만 두거나 바꿀 의향 1=있음, 0=없음
설명변수	
경제적 상태 변수	
가계 근로소득	급여+상여금+자영소득+부업소득(만원/년)
가계 비근로소득	자산소득+이전소득+기타소득(만원/년)
가계 금융자산	저축+채권+주식+임대소득+연금+보조금(만원/년)
부동산	주택시세
부채유무	부채, 사채, 월부나 외상금의 유무 1=있음, 0=없음
엔겔계수	연간 식비/연간 총가계지출
교육비	학교교육비+과외비+특별활동비+기타(만원/년)
여가비	교양, 오락비(만원/년)
경제적 수준 인식	현재 가계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여성적 책임 변수	
결혼상태	1=기혼, 0=기타(별거, 이혼, 미망인)
자녀수	동거 자녀수
6세 미만 자녀유무	1=없음, 0=있음

서 이러한 변수들은 객관적, 주관적 경제상태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여성적 책임 변수에는 자녀수, 6세 미만 자녀의 유무, 결혼상태 등 여성의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의 책임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를 포함시켰다.

2. 연구방법

1) 표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93년도 한국가구패널 조사(KHPS)자료로, 이것은 다단계 층화 확률표본(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 방식에 의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추출한 일반가구 4,547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이 조사의 목적은 가계 및 가족구성원의 사회·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연구내용에 따라 미혼 여성을 제외하고, 별거, 이혼 등의 결혼상태와 관계없이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거주지역을 서울을 비롯한 5개 대도시로 제한하였는데, 이것은 경제활동을 위한 조건을 동일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취업여성의 경우 농림수산업, 비정규직, 무급가족 종사자, 취업준비자, 학생, 청소년, 아동, 연로 등에 해당하는 여성을 제외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선택된 본 연구의 표본은 총 2,037가구였으며, 이 중 취업여성 가구는 314가구(15.4%)였다. 또한 본 연구는 조사문항에 의해 변수를 구성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2>와 같다.

2) 분석방법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평균, 백분율의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종속변수인 성인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나 노동이동 의사는 모두 이항변수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변수의 영향력은 각각 Binomial Probi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 종속변수 간의 동시적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Bivariate Probit 분

〈표 3〉 경제활동 참가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범주형 변수	성인여성	취업 여성 (N=314)	비취업 여성 (N=1,723)	전 체 (N=2,037)
		Freq (%)	Freq (%)	Freq (%)
연령	20-29세	52(16.6)	421(24.4)	473(23.2)
	30-39세	98(31.2)	669(38.8)	767(37.7)
	40-49세	94(29.9)	302(17.5)	396(19.4)
	50세이상	70(22.3)	331(19.2)	401(19.7)
교육수준	중졸이하	148(47.1)	663(38.5)	811(39.8)
	고 졸	133(42.4)	887(51.5)	1020(50.1)
	대졸이상	33(10.5)	173(10.0)	206(10.1)
결혼상태	기혼	266(84.7)	1662(96.5)	1928(94.6)
	기타	48(15.3)	61(3.5)	109(5.4)
6세미만 자녀	있음	70(22.3)	688(39.9)	758(37.2)
	없음	244(77.7)	1035(60.1)	1279(62.8)
부채	있음	148(47.1)	938(54.4)	1104(54.2)
	없음	166(52.9)	785(45.6)	933(45.8)
연속형 변수		Mean(SD)	Mean(SD)	Mean(SD)
자녀수		1.73(1.03)	1.67(0.92)	1.68(0.94)
가계근로소득(만원/년)		2088.72(1266.54)	2116.40(1502.66)	2111.99(13780.73)
가계비근로소득(만원/년)		431.28(930.62)	413.54(719.42)	415.90(749.88)
가계금융자산(만원)		1302.28(6593.06)	778.07(1406.88)	853.63(2823.36)
부동산(만원)		9029.79(6452.59)	9853.95(7600.95)	9718.98(7427.87)
엔겔계수		0.50(0.15)	0.51(0.15)	0.51(0.15)
교육비(만원/년)		292.48(297.59)	266.18(288.23)	270.34(289.78)
여가비(만원/년)		6.89(9.57)	6.36(7.70)	6.44(8.01)
경제적 수준인식(1-5점) ^a		2.66(0.82)	2.68(0.84)	2.67(0.84)

a: 1. 매우 불만족스럽다, 3. 보통이다, 5. 매우 만족스럽다

석을 수행하였다³⁾

자료의 분석은 Limdep program(Ver.6.0)을 이용하였는데, 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모든 변수의 적률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05 수준 미만에서 유의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났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경제활동 참가에 따라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여성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3) Bivariate Probit 분석은 두 개의 종속변수 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할 때 유용한 분석으로 모델식은 다음과 같다(Greene, 1993)

$$Z_{1i} = \beta_1' x_{1i} + \varepsilon_{1i}, y_{1i} = \text{sgn}(z_{1i}),$$

$$Z_{2i} = \beta_2' x_{2i} + \varepsilon_{2i}, y_{2i} = \text{sgn}(z_{2i}),$$

$$\varepsilon_{1i}, \varepsilon_{2i} \sim \text{BVN}(0,0,1,\rho),$$

이 때 (y_{1i}, x_{1i}) 은 $y_{2i} = 1$ 일 때에만 관찰된다.

따라서 관찰치에 대한 log-likelihood함수는 다음과 같은 확률을 기초로 계산된다.

$$y_{1i}=0 : \text{Prob}(Y_{2i}=0) = 1 - \Phi(\beta_2' x_{2i})$$

$$y_{2i}=0, y_{2i}=1 : \text{Prob}(y_{1i}=0, y_{2i}=1) = \Phi_2[-\beta_1' x_{1i}, \beta_2' x_{2i}, -\rho]$$

$$y_{1i}=1, y_{2i}=1 : \text{Prob}(y_{1i}=1, y_{2i}=1) = \Phi_2[\beta_1' x_{1i}, \beta_2' x_{2i}, \rho]$$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여성 2,037명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은 15.4%인 314명이었고, 나머지 84.6%인 1,723명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여성이 비취업 상태였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 이것은 표집 및 본 연구의 내용에 맞는 표본선택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취업 여성과 비취업 여성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고, 전체 평균 연령은 38.6세였다. 교육수준은 취업 여성과 비취업 여성 모두 중졸과 고졸이 많았고, 평균 교육년수는 비취업 여성이 10.5년, 취업 여성이 10.1년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 평균 교육년수는 10.4년이었다. 결혼상태를 기혼과 기타로 구분해보면 거의 대부분 기혼 상태였으나, 취업 여성의 경우 기타에 해당하는 비율이 비취업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녀수는 취업 여성이 평균 1.73명, 비취업 여성이 평균 1.67명이었으며,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비율은 비취업 여성이 보다 높았다. 가계의 근로소득 및 비근로소득, 그리고 금융자산 및 부동산을 살펴보면 집단간 편차가 큰 편이었다. 부채가 있는 가계는 취업 여성과 비취업 여성 가계 모두 대략 비슷한 분포였다. 그러나 앵겔계수는 취업 여성과 비취업 여성 가계 모두 생존가능한 수준인 0.5 수준이었고,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

〈표 4〉 취업 여성의 노동이동 의사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범주형 변수	취업여성	노동이동 의사 있음 (N=69)	노동이동 의사 없음 (N=245)	전체 (N=314)
		Freq (%)	Freq (%)	Freq (%)
연령	20-29세	10(14.5)	42(17.1)	52(16.6)
	30-39세	25(36.2)	73(29.8)	98(31.2)
	40-49세	24(34.8)	70(28.6)	94(29.9)
	50세 이상	10(14.5)	60(24.5)	70(22.3)
교육수준	중졸이하	28(40.6)	120(49.0)	148(47.1)
	고졸	33(47.8)	100(40.8)	133(42.4)
	대졸이상	8(11.6)	25(10.2)	33(10.5)
결혼상태	기혼	64(92.8)	202(82.4)	266(84.7)
	기타	5(7.2)	43(17.6)	48(15.3)
6세미만 자녀	있음	14(20.3)	56(22.9)	70(22.3)
	없음	55(79.7)	189(77.1)	244(77.7)
부채	있음	34(49.3)	114(46.5)	148(47.1)
	없음	35(50.7)	131(53.5)	166(52.9)
연속형 변수		Mean(SD)	Mean(SD)	Mean(SD)
자녀수		1.90(1.02)	1.68(1.03)	1.73(1.03)
가계근로소득(만원/년)		2272.07(1686.01)	2036.00(1116.22)	2088.72(1266.54)
가계비근로소득(만원/년)		436.11(547.16)	429.52(1040.68)	431.28(930.62)
가계금융자산(만원)		751.43(1361.48)	1460.09(7439.95)	1302.28(6593.06)
부동산(만원)		8643.55(5044.18)	9138.64(6813.22)	9029.79(6452.59)
앵겔계수		0.47(0.14)	0.52(0.15)	0.50(0.15)
교육비(만원/년)		267.40(236.12)	301.00(315.99)	292.48(297.59)
여가비(만원/년)		8.21(8.83)	6.50(9.76)	6.89(9.57)
경제적 수준인식(1-5점) ^a		2.41(0.86)	2.73(0.79)	2.66(0.82)

^a: 1. 매우 불만족스럽다, 3. 보통이다, 5. 매우 만족스럽다

식도 보통수준인 3점보다 낮아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지출은 취업여성 가계가 다소 많았던 반면, 여가비지출은 비취업여성가계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여성 중 노동이동 의사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취업 여성 314명 중 현재의 직업을 그만두거나 바꾸고 싶은 의향이 있는, 즉 노동이동 의사가 있는 여성은 22.0%인 69명이었고, 나머지 78.0%인 245명이 노동이동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비교가 어렵지만, 이근희, 조명기(1991)의 연구와는 달리 노동이동 의사가 낮게 나타난 것은 표본의 직업 상의 차이가 부분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노동이동 의사와 그 실행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노동시장의 조건 상 노동이동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 노동이동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노동이동 의사가 없는 취업 여성의 평균 연령은 41.4세, 노동이동 의사가 있는 취업 여성의 평균 연령은 39.9세였다. 교육수준은 노동이동 의사가 있는 취업여성이 약간 높았지만, 6세 미만 자녀의 유무는 두 집단 간에 있어서 대략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노동이동

의사를 갖고 있는 취업여성의 자녀수는 노동이동 의사를 갖지 않은 취업여성의 수보다 많았다. 결혼 상태를 살펴보면 노동이동 의사가 없는 취업여성이 그렇지 않은 취업여성보다 기타인 비율이 높았다.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살펴보면 가계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여가비 등은 노동이동 의사가 있는 취업 여성의 가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자산, 부동산, 교육비 등은 노동이동 의사가 없는 취업 여성 가계가 더 많았으며, 앵겔계수도 더 낮았다. 또한 노동이동 의사가 있는 취업 여성 가계는 부채를 갖고 있는 비율이 약간 더 많았으며,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도 더 낮아, 전체적으로 볼 때 노동이동 의사가 없는 취업여성 가계가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2. 성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설정했던 연구모델에 따라 여성의 경제적 상태변수가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Probit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성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Probit 분석 결과

변 수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t-ratio
가계 근로소득	-0.515***	0.619E-01	-8.317
가계 비근로소득	-0.190**	0.771E-01	-2.466
가계 금융자산	-0.444E-05	0.537E-05	-0.827
부동산	-0.255E-05	0.572E-05	-0.447
부채유무	-0.343E-04	0.401E-04	-0.856
앵겔계수	0.126E-04	0.104E-04	1.211
교육비	0.237***	0.605E-01	3.914
여가비	-0.630	0.952E-05	-0.066
경제적수준 인식	0.323***	0.581E-04	5.566
Intercept		0.432E-01	
Log-likelihood		-1368.022	
Restricted Log-Likelihood		-1475.199	
Chi-Squared(9)		214.354***	

** p < .01, *** p < .001

분석 결과 전체 모델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상태 변수는 가계 근로소득, 가계 비근로소득, 교육비 및 경제적 수준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가계 근로소득과 가계 비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이것은 남편의 소득, 타소득, 타가구의 소득 등 가계의 경제적 상태가 안정적일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는 반면, 저소득층일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신영수, 1991; 홍성우, 1983; Eggebeen & Hawkins, 1990; Hoffman, 1974)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여성은 교육비 지출이 클수록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총생산의 5.77%에 해당하는 약 20조원에 이르고 있는 등 가계의 큰 재정적 부담이 됨으로써 여성의 취업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문숙재, 김성희, 1995; 윤선희, 1994; 통계청, 1995)을 확인시켜준다고 하겠다.

또한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이 만족스러울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것은 가계의 근로소득이나 비근로소득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간의 부적 관계가 나타난 결과와 다소 상반된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이 생존유지가 아니라 보다는 생활의 경제적 여유를 추구하는 경제적 동기

에서도 비롯될 수 있음을 들 수 있다(Hoffman, 1974). 다른 이유로는 경제적 수준이 남편의 소득이나 여성의 학력 등과 관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영옥(1993)의 연구결과가 시사적일 수 있다. 김영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는 부적 관계가 나타났지만, 취업자 중 출산과 관계없이 연속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고학력일수록 높으며, 특히 대졸 여성에게서 급격하게 높아지는 형태를 보인다. 즉 출산 후 노동시장에 남는 여성의 수는 고학력일수록 적지만, 잔류한 고학력 여성은 동일한 직종에서 직업경력을 쌓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간의 정적 관계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자아실현이나 능력발휘 등의 동기에 의해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취업여성의 노동이동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여성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의 노동이동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적 책임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Probit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취업 여성의 노동이동 의사는 6세 미만 자녀의 유무와 결혼상태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 취업 여성은 6세 미만 자녀가 있을 때 노동이동 의사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

<표 6> 취업여성의 노동이동 의사에 대한 Probit 분석 결과

변 수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t-ratio
자녀수	0.203E-03	0.120E-03	1.695
6세미만자녀(없음)	-0.142E-03*	0.740E-04	-1.920
결혼상태(기타)	-0.689E-03***	0.532E-04	-12.946
Intercept		-0.586	
Log-Likelihood		-1258.825	
Restricted Log-Likelihood		-1402.370	
Chi-Squared(3)		287.090***	

* p < .05, *** p < .001

가정내 어린 자녀의 존재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양승주(1993), Becker(1976), Bielby(1992) 등의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취업 여성의 노동이동 의사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여성의 결혼상태였다. 여성은 이혼, 사별, 별거 등의 독신상태보다는 기혼 상태에 있을 경우 노동이동 의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의 결혼과 노동이동 간에 부적 관계가 있다고 한 Felmler(1982)의 연구결과와는 다르지만, 신영수(1991), 김승아(1989)의 연구결과와는 일치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는 독신상태의 여성이 결혼생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현재 직업에 대한 소명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저야 하므로 직업선택 상의 융통성이 적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자녀수는 취업 여성의 노동이동 의사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6세 미만 자녀의 유무나 결혼상태의 영향력은 우리나라의 여성에게 있어서 여성적 책임이 경제활동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

한 전체 모델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4. 성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노동이동 의사의 상호관련성

본 연구에서 설정했던 연구모델에 따라 여성의 경제적 상태와 여성적 책임변수에 의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노동이동 의사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Bivariate Probit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노동이동 의사를 각각의 종속변수로 설정했던 Probit 분석 때와 비교할 때 Bivariate Probit 분석 결과 각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던 독립변수의 추정계수가 다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하게 나타난 변화는 취업 여성의 노동이동 의사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던 자녀수가 매우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노동이동 의사에 미치는 여성적 책임, 특히 자녀와 관련된 변수의 영향력

<표 7> 성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노동이동 의사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Bivariate Probit 분석 결과

변 수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t-ratio
가계근로소득	-0.795***	0.590E-01	-13.480
가계비근로소득	-0.229***	0.680E-01	-3.370
가계금융자산	-0.349E-05	0.515E-05	-0.676
부동산	-0.203E-05	0.143E-04	-0.142
부채유무	-0.553E-04	0.370E-04	-1.494
엔젤계수	0.415E-05	0.112E-04	0.371
교육비	0.140**	0.497E-01	2.817
여가비	0.401E-05	0.967E-05	0.415
경제적 수준인식	0.273E-03***	0.571E-04	4.780
Intercept		0.301	
자녀수	0.159E-03***	0.125E-03	1.274
6세미만자녀(없음)	-0.302E-03***	0.682E-04	-4.425
결혼상태(기타)	-0.189E-503***	0.490E-04	-3.864
Rho(1,2)	-0.995***	0.464E-02	-214.389
Intercept		-0.355	
Log-Likelihood		-2146.456	

** p < .01, *** p < .001

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Rho의 값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의 연구모델, 즉 여성의 경제적 상태변수와 여성적 책임변수가 경제활동 상태, 구체적으로는 경제활동 참가 및 노동이동 의사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 여성은 경제적 상태나 여성적 책임에 의해 경제활동 참가 여부와 노동이동이 동시에 결정될 수 있어서, 이상과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에 있어서 경제적 상태와 여성적 책임변수가 결정적인 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적 상태와 여성적 책임변수에 의해 경제활동 참가와 노동이동 의사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였던 20세 이상 성인 여성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매우 낮아서 생산가능 연령이면서도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특히 기혼 여성 중 96.5%가 비취업 상태에 있었고, 독신상태에 있을 때 취업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결과는 이차적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을 반영해주고 있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했던 경제적 상태 변수 중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난 변수는 가계의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교육비, 경제적 수준 인식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가계의 소득, 지출, 주관적 인식 등 여러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상태변수는 생계유지, 경제적 여유, 혹은 특정 지출비 증가에 따른 필요성 등에 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과 달리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다양한 경제적 동기와 배경에 의해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업하고 있는 여성 중 현재 직업을 그만두거나 바꾸고 싶은 노동이동 의사를 갖고 있었던 여성의 비율은 22.0%여서 현재의 취업생활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노동이동 의사 비율은 여성의 탄력적, 유동적 특징에 비추어볼 때 다소 낮은 수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노동이동은 개인의 보다 나은 노동조건을 추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인 반면 취업경력이 누적될 수 없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노동이동 의사의 배경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함께 그 실행여부도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적 책임변수 중 취업 여성의 노동이동 의사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결혼상태와 6세 미만 자녀의 유무였다. 여성의 결혼이나 가정내 어린 자녀의 존재는 취업 여성이 노동이동 의사를 갖게 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의 노동이동 의사가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 즉 노동조건이나 성취동기가 아니라 여성적 책임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여성의 경제적 상태변수와 여성적 책임변수에 의해 분석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노동이동 의사 간의 상호관련성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제적 상태와 여성적 책임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여부와 경제활동 참가 후 현재 직업의 변화를 모색하는 노동이동 의사를 가질 가능성이 상호관련되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개의 경제활동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분석에서 자녀수, 6세미만 자녀의 유무 및 결혼 상태 등 여성적 책임 변수가 모두 노동이동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적 책임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은 여성자신의 능력이나 기술 등의 인적 자본보다는 가계의 경제적 상태 혹은 결혼, 출산과 같은 여성적

책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며, 가계의 보조자 위치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 노동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여성적 책임의 부담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정책, 예를 들어 기혼 여성의 고용할당제, 출산 및 양육을 위한 휴직제, 직장탁아의 증설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계의 경제적 상태와 관련되기 보다는 자발적, 능력발휘의 동기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차별적 고용관행의 폐지와 함께 여성의 직업소멸감 증진이나 직업훈련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노동이동의 사에 있어서 경제적 상태변수와 여성적 책임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 영향력과 상호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갖는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상호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델과 분석방법의 특성상 다양한 성격의 설명변수를 도입할 수 없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그 영향력이 크며, 여성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영향력이 인정되고 있는 인적자본 관련변수를 의도적으로 모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기존 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배경이 충분히 분석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수의 탐색과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영옥(1993), 여성의 불연속적 취업과 직종이동, *여성연구*, 11(4), 39-61.
- 2) 김수곤(1976), 노동공급과 실업구조, 한국개발연구원.
- 3) 김승아(1989), 직업탐색에 관한 이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태홍(1993),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여성연구*, 11(4), 한국여성개발원, 75-109.
- 5) 김혜연(1995), 취업주부의 비용과 가사노동의 가치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노동부(1996, 1997),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 7) 노비혜, 김영옥(1993), 한국여성의 취업경력, 한국여성개발원.
- 8) 문숙재, 김성희(1995), 자녀교육 및 양육비용의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301-314.
- 9) 문숙재, 김순미, 윤소영(1996), 취업여성의 노동중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99-112.
- 10) 신영수(1991), 여성노동시장의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11) 어수봉(1993),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 12) 양승주(1993),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 분석, *여성연구*, 11(3), 133-156.
- 13) 윤선희(1994),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이근희, 조명기(1991), 여성노동력의 특성과 이동, 한국생산성본부.
- 15) 통계청(1993, 1995, 1996), 경제활동인구연보.
- 16) 홍성우(1983),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안드레 저, 한국여성개발원 역(1987), 가정주부, 한국여성개발원.
- 18) Becker, G.S.(1975), *Human Capital*,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9) Bielby, D.(1992), Commitment to Work and Famil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 281-302.
- 20) Desai, S. & L.J.Wate(1991), Women's Employment During Pregnancy and After the First Birth: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Work

- Commit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551-566.
- 21) Eggebeen, D.J. & A.F.Hawkins(1990), Economic Need and Wives' Employ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11, 48-67.
- 22) Ehrenberg, R.G. & R.S.Smith(1994), *Modern Labor Economics*, Illinois: Scott, Foreman and Company.
- 23) Felmler, D.H.(1984), A Dynamic Analysis of Women's Employment Exits, *Demography*, 21(2), 171-183.
- 24) Finegan, T.(1975), A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n the Labor Force, *Sex, Discrimination and the Division of Labor*, Columbia University Press.
- 25) Granovetter, M.(1988), The Sociological and Economic Approaches to Labor Market Analysis: A Social Structural View, *Industries, Firms, and Jobs: Sociological and Economic Approaches*, NY: Plenum Press.
- 26) Greene, W.H.(1993), *Econometric Analysis*, NY: Macmillan Pub, Co.
- 27) Hanoch, G.(1980), Hours and Weeks in the Theory of Labor Supply, *Female Labor Supply: Theory and Estim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8) Heckman, J.J.(1974), Shadow Prices, Market Wages, and Labor Supply, *Econometrica*, 42, 679-694.
- 29) Hoffman, L.W.(1974), Employment of Women and Fertility, *Working Mothers*, San Francisco: Jossey-Bass.
- 30) ILO(1992), *Labor statistics*.
- 31) Killingsworth, M.R. & L. Heckman(1986), Female Labor Supply: A Survey, *Handbook of Labor Economics*, 1, 103-204.
- 32) Lloyd, G.R.(1982), *Labor Economics and Labor Relations*, NJ: Prentice-hall.
- 33) Mincer, J.(1969),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 Study of Labor Supply, *Aspects of Labor Economics*, NB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 34) Moen, P.(1985),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Women's Labor Force Activity, *Life Course Dynamics: Trajectories and Transitions, 1968-1980*, Cornell University Press.
- 35) Nakamura, A. & M. Nakamura(1991), Children and Female Labor Supply : A Survey of Econometric Approaches, *Female Labor Market Behavior and Fertility*, NY:Springer Verlag.
- 36) Vickery, C.(1979), Women's Economic Contribution to the Family, *The Subtle Revolution: Women at Work*,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37) Waite, L.J.(1980), Working Wives and the Family Life Cycl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6, 272-294.